

옛 믿음의 틀을 깨고 서밋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는 유다사-

창세기5:24, 유다사11:14-21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시고 환경의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응답과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복음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시 한 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을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까지도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주일이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흠이 없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하는 영적 서밋의 목표를 주신 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복 분이셨다. 그곳에서 굉장한 부자이셨는데, 6.25 때 모든 것을 잃고 재산을 다 정리해 배 한 척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친인척 70여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셨는데 배가 고장 나서 부산까지 가지 못하고 목포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목포에서 태어나게 됐다. 그곳에는 피난민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아버지인 하대희 장로님이 함께 계셨다. 잘 못이 없으니까 학교 교실에서 나뉘 자고는 했다. 그러다가 생활이 어렵다보니 까 저희 할머니께서 콩나물 장수를 하셨다. 기억에 제가 유치원 끝나고 오면 큰 시장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콩나물을 팔고 집에 오면 콩나물에 물을 주며 키우고 깨끗한 콩을 같이 고르곤 했다. 그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탄을 많이 피우다보니 나중에 치매가 오셨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10년 가까이 사셨는데, 5년 동안은 치매 때문에 말 그대로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상태가 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내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겠다.’ 하셔서 장애인 8명과 어머니를 모시고 섬에 들어가셨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참 효자시구나.’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치매 걸리신 할머니를 모시는데 한 번도 짜증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참 효부, 효자이시구나 싶었다. 그렇게 섬에 들어가신지 6개월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함께 있던 8명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재활원도 만들고 그러다 중증 장애인시설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정신 요양시설도 만들고, 제주요양시설, 자립원까지 만들게 되다 지금까지 이어져 장애인주간센터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효행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구나. 그 뿌리가 그것이구나’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저의 불효가 생각난다. 어렸을 때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욕하는 성격이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쉽게 하지 않는가. 어머니가 나와 맞지 않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바쁘려고 했다.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섭섭한 마음을 품어서 이야기했다. 그 때 당시 어머니 얼굴이 너무 처참한 얼굴로 변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는데 유방암에 걸리셨다. 그 때마다 어머니의 인상이 잊혀지지 않는다. 암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때 내가 참을 걸’ 이 생각이 있었다. 암은 한 순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는데 내가 독기를 품고 ‘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 하며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때 어머니 마음속에는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철이 들면서 그 때의 불효가 떠올랐다. 형제들은 다 흩어졌지만 참 감사한 것이 저는 부모님과 오래 동안 살았다. 대화도 하고 말도 포맷도 했다. 가장 큰 행복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들인 것 같다. 그렇다고 시집가지 말고 계속 살라는 말은 아니다.(웃음) 우리가 너무 소중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실수, 잘못하거나 잃고 나서 후회한다. 에녹이 자녀가 굉장히 효자였던 것 같다. 에녹의 자녀가 누구인가 므두셀라이다.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다. 므두셀라가 사망하던 해에 노아의 방주 홍수가 시작된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120년 동안 힘을 주고 메시지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였다. 그 중심은 바로 순종, 거룩이며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되지만 그 방향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결국에는 영적 서밋, 믿음의 서밋의 자리에 이를 줄을 믿는다. 오늘 유다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한 정박에 안 되는 유다서이지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증거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산 구약을 한 장짜리 액자으로 축약해놓은 말씀이 유다서라고 할 수 있겠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예수님의 젖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도 예루살렘에 문제가 오면 야고보의 지도를 받았다.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형제인데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평생 교회를 지키는 일을 야고보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제자였다. 정식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역할을 맡았던 제자였다. 그래서 유다는 과거부터 있었던 선견적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예수가 왜 메시아 그리스도야?’라고 생각했던 옛 틀을 깨고 자기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 유다였다. 유다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가롯 유다. 똑같은 이름인데 결과가 다르지 않은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 다니

는 교인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다. 여러분이 믿음의 서밋의 자리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한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서를 보낸다. 불신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다. 그렇다. 교회에 보낸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많은 유혹을 받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힘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다. 오직 예수 했는데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다. 오직 예수 했는데도 결국에는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편당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내 그룹을 만들어서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오직 예수가 아닌게 아니다. 유다가 간절히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속사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화(化) 되기를 축원한다.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화(化)가 되어야 한다.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순종의 체질로 변화야 한다. 나를 방어하는 방어기제, 나에게 손해 오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사람까지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래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의 말에 의하면 복음의 기초메시지를 보내려 하다가, 다른 내용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 한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오직 예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여기까지 아는 것도 기본메세지이다. ‘하나님 떠나면 다른 문제가 온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돼.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다 해결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것을 다 알았는데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이겨야 하지 않은가. 다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말로 예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넘치기를 축원한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락방을 할 때도 충격 받는 것이 없다. ‘그래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는 다이다. 당연한 것을 안했구나. 전도해야지.’ 별로 뜨거운 사랑과 감정이 없다. 그것이 못된 모태신앙이다.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교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주신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는 나인데, 나는 가짜이고 저 분이 진짜구나.’ 하는 경우가 있다. 목사가 못났더라도 예수님이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시길 축원된다. 나도 체험은 있다. 열심히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친구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에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자게 되었다. 그 때 처음 느꼈다. 떠나려고 하니 교회의자가 너무 사랑스럽더라. 아파 최정훈 목사님이 그리실 것 같다. 이 교회 하나 하나가 다 사랑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최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사랑이 있기를 축원한다. 램네토 마찬가지이다.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었는가. 떠드는 것, 뛰어서는 것, 부수는 것, 도둑에 예뻐다. 교회 와서 교회를 부수는 것이 얼마나 예뻐가.(웃음) 놀더라도 교회 안에서 놀아야 한다. 김 집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깨부수려면 유리까지 깨야지’ 교회 때려 부수어야 목회자 된다. ‘교회 부순 만큼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다.(웃음) 나름대로 해결을 받는 응답이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트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치유될 줄을 믿는다.

1. 깨트리지 못한 옛 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 1장 4절에 보면 7만여 들어 온 사람들 몇 명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00년이 넘도록 말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큼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처음에는 이단이 없었다. 그런데 성장하는 만큼 이상한 이단, 우리처럼 진짜로 가짜인 이단이 있지만(웃음) 진짜로 진짜 이단이 있다. 총회장님이 대표회장님이 되셨다. 통합측은 다 비주류이다. 한기총 법인으로 들어와야 한다. 국에서 인정하는 법인은 우리 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이니 진짜 일을 하게 하신다. 참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한기총을 욕한다. 원래는 우리도 한기총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기총에 들어가니까 신천지와 싸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신천지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회한한 사람들이 원래 들어온다. 선교사라고 그 교회에서 5년, 10년 동안 헌신하다가 사람을 피어나간다. 대전에 어떤 교회에는 12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상하며 안수집사님 한분이 열 명의 장로님을 신천지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이상한 목사들이 많다고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해야 한다. 엘리 제 사장이 잘못했지만 사무엘이 그 현장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램네토와 중직자가 되시길 축원한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들을 바꾸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똑같은 것이다. 1장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 옛 틀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다. 어떤 집사님께 여쭙봤다. 가족 다 버리고 혼란반으려고 신천지에 오래 계셨는데, 이만회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바로 짐 싸고 나왔다고 한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1년에 기독교 70~80%가 신천지로 넘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디서 왔는지 다 조사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음에 들면 교회 다니시고 예배드리세요.’한다. 이것만 봐도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원의 유일하신 주재이심을 부인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단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오직 예수 믿음 속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죽을 믿기를 바란다. 여기에

전을,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감격이 있어야 한다. 보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체험이 다 있기를 축원한다.

(2) 1장 5절에서 유다는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 하고 멸망을 당했던 6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광야 같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환경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주셔서 없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구원받은 것 하나로 모두 끝나야 한다. 어떤 광야, 피약됨, 모래바람이 쳐도 어떤 목마름이 있어도 불만 불평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광야에 40년이 아니라, 1년 동안 라면만 먹게 할 것이다.(웃음) 그래도 불만 불평하면 안 된다. 지금 WRC는 참 좋아졌다. 나고야 집회 때는 피약됨에서 5.6시간 서있는데 불만,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감사했다. 승리할 줄을 믿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었다.

(3) 1장 6절에서는 타락할 천사들처럼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지켜야 할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옛 틀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다. 천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 역할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가.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봉 던지고 떠나는 것 몇 번 봤다. 반주자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다. 참사모교회 와서 봤다. 무의식 조사를 하는데 헌장에서 그 사람의 고기를 다 알 수 있다. 갈 때마다 정말로 놀란 것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역하는데 믿음이 없다. 말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한다. 그런데 진짜 무의식, 잠재의식을 보면 결론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기를 바란다. 그 자리에 내 자존심, 하는 척, 정치, 이념, 지역중심, 이권 잡히지 말아라.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기를 바란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4) 1장 7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반드시 깨야 할 옛 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모습까지 경고하고 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동성애하는 몇 사람들이 인상을 썼다고 한다. 한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 무지개 형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슬러 되었느니라.’ 동성애자의 특징은 결국 쾌락을 따라간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쾌락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창에 찢려서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지 않았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그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5) 1장 8절에 보면 ‘꿈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옛 틀의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한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메시지를 불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리지 않았는가. 복음 없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를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또한 형제를 자기 질투 하지 않았는가. 발람은 자기의 백성을 축복해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권 때문에 축복해야 할 성도들을 저주했다.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는 내가 세웠고 나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6) 1장 16절에 보면 옛 틀을 깨트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절대 원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원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불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만스럽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경욕, 의지대로 행한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사람들은 자랑의 말을 한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했고, 교회는 다 못했다고 한다. 자기가 목회 한 번 해보지.(웃음) 말해주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박사까지 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성도 한 명도 안 모인 다.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똑똑하고 잘났으면 여러분이 가서 목회 한 번 해봐라. 후배가 신대원 갔는데 데모 다 해보고 졸업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투쟁적인 얼굴이었다. 생각부터 다 보이는 얼굴이다. 그런데 10년 후에 봤는데 얼굴이 너무 온화해졌다. “너 거들났다. 얼굴이 다른데?” 하니까 “선배님. 개척한 지 3년 됐잖아요.” 한다. 여러분도 깨지고 고생해봐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존경하고 싶다. 맞기 전에 말씀 속에서 깨닫고 누리기를 바란다. 감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라.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라. 왜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하기 때문이다. 불만의 모습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내 정욕, 내 입으로 나만 자랑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다락방을 하며 말씀운동을 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아첨을 잘 하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계산한다. 어제도 한 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도 편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는 약한 거니, 어리석은 거니?” 물어보니까 “약한 거죠.” 한다. “그래 맞아. 성경에는 어리석은 것도 약하다고 그랬어.” 말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데는 어리석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란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7)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욕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한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다가 가둬놓고 하루 종일 메시지 하면서 영접시켜보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 알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면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니면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주인을 바꿔라. 그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같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2.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인 새 틀은 무엇인가.

(1) 유다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지난주에 전한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 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이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단, 잘못된 신앙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 들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바뀌는 것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키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2) 유다서 1장 21절에는 새 틀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왜인가. 사랑이 약해지면 우리들의 믿음, 마음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들이 결혼한다니 혼수를 다 사준다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후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사랑이 떨어져 다른 게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웃음) 맞아. 사랑이 있으면 다 필요 없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으면 다 필요 없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애인의 방기도 달콤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나가지 귀이!’ 한다. 연애할 때와 달라진다. 그것을 변절이라고 한다.(웃음) 주님의 사랑은 변절이 오지 않는다.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였으며, 요한사도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한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로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부족하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복음이 환산된다.

(3) 말씀을 전파하는 다락방, 지교회, 현장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줘야 한다. 유다서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화히 여기라’ 그리스도 사랑이 있으면, 연약한 믿음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다락방 사역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은 영적 문제와 세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강하게 사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시간이 없어도 내일부터 전도캠프를 하는 분들. 복음으로 결론 난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공화히 여기라’ 복음으로 결론 난 여러분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가정과 개인을 건지내는 사역에 생명의 열매를 바란다. 잊게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복음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가 치유하고 살려내는 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1. 유다서와 언약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허락하신 믿음의 도를 지켜야겠다. 그 믿음의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사랑이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현장에 나가야 한다.

2. 유다서와 비전이다. 전 세계, 237개국에 정확한 복음과 전도자의 삶을 증거할 신학교를 곳곳에 세워야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신학교 강의만 한다. 그 사람들이 지역 다 살릴 제자들이다.

3. 유다서와 꿈이다. 서부지역에 있는 타락하고 무너진 신학교 덕에 목회자들이 타락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아니어서 결국에는 교회 문까지 다 닫혔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꿈을 꾸어야 한다.

4. 유다서와 이미지이다. 전 성도들이 62가지 절대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절대 현장을 발견하여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5. 유다서와 실천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릴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다. 여러분 밖에 없다. 그래서 큰 일이 아니라 참사랑과 참 믿음 안에서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237개국이 살아날 것이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측의 영적수준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과 재앙과 흑암과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 개인들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주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주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